

## 滿空 月面の 사상과 활동

김 경집(동국대 강사)

### I. 緒 言

한국불교에 있어 근대는 排佛의 여파와 일본불교의 來韓 속에서 자신의 종지를 상실하고 종교가 지녀야 할 시대적 사명감마저 잃어버린 시기이다. 이처럼 암담하고 힘겨운 현실에서 滿空 月面(1871~1946)은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침체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진작시키면서 단절된 법통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만공은 생애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의 격변기를 살아간 고승이다. 이 시대는 만공은 鏡虛의 법맥과 사상을 계승하여 일제하에서도 선풍이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시대적 불운을 한탄하기보다는 한국불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절의식과 올바른 혜명이 계승되지 못함을 더 큰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올바른 신행운동을 통해 승가의 근본을 확립하고, 여러 가지 교학사상을 발표함으로써 침체되어진 승단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만공의 사상은 一宗一派에 치우치지 않았다. 마음의 요체를 밝히는 선에서부터 하근기의 중생구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시대에서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그의 글에서 풍기고 있음도 따른 고승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그의 평가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만공의 생애가 다양한 양상이 표출된 시대를 살아간 출가인이기 때문이다. 법맥이 쇠잔한 시대에는 법맥의 상승을 위해, 일제의 통치아래에서는 민족적인 불교운동을 전개해야 했던 만공에서 우리는 진정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단서를 엿볼 수 있다.

변절하기 쉬운 시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보여준 사상과 활동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따라서 그 모습을 올바르게 조명하는 일은 격변기의 한국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 II. 만공의 생애와 깨달음

### 1. 탄생과 출가

만공은 1871년(高宗 8) 3월 7일 全羅北道 泰仁郡 泰仁邑 上一里에서 아버지 礪山宋氏 神通과 어머니 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신령스런 용이 구슬을 토하면서 황홀한 빛을 내었는데 그 빛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잉태하였다.

어린 시절의 이름이 道岩이었던 그는 불교와 인연은 그리 긴밀하지 않았다. 다만 두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俗世의 세업을 이을 아이가 아니고 장차 불문에 들어 서 고승이 될 아이요”라고 말한 이야기 이외에 인연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그의 어린 시절은 여느 집 아이처럼 집에서 가까운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도암이 출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1883년(高宗 20) 13세였다. 이때 그의 발심은 구도의 정신에서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그 해 겨울 절에 가서 過歲를 하면 장수하고 신수가 길하다는 말을 듣고 金山寺로 간 것이다.<sup>1)</sup>

이것은 소년 도암이 알고 있던 불교는 바로 기복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신앙관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도 일치하고 있다. 1883년을 전후한 한국불교는 종단은 물론 증명마저 없어진 채로 산중에서 선과 함께 교를 겸수하면서 지냈던 無宗山僧時代이다.<sup>2)</sup> 이런 시대적 여건 속에서 종단을 중심으로 신앙 활동을 전개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심층적으로 교리를 연구하는 분위기도 대중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생활과 내세적 신앙관이 조화될 수 있는 신앙형태를 갈구하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시대인 만큼 도암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관도 그런 배경을 무시하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그가 아무런 인연 없이 출가의 뜻을 두고 절을 찾아간 것은 그 열정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가 금산사로 가서 처음 부처님의 불상과 스님들을 보았을 때 환희심이 샘물처럼湧출하였다는 것은 마음 깊숙이 불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4)</sup>

그가 본격적으로 출가를 결심한 것은 금산사를 다녀온 이후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구도의 마음을 가눌 수 없었지만 그 뜻이 쉽게 이를 수도 없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만류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從兄을 붙여 감시할 정도였다.

1)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0-271쪽

2) 金煥泰, 「近代佛敎의 宗統 宗脉」 『韓國近代宗敎思想史』(전북: 원광대출판국, 1984), 186쪽

3) 韓普光, 「信仰結社의 類型과 그 役割」 『佛敎學報』 제30輯(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3), 참조

4)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1쪽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 전에 가 있었다. 결국 야반에 도주하여 쏜주에 있는 鳳棲寺로 갔다. 거기에서 출가를 권유받기는 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무작정 길을 떠났다.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당도한 곳이 전주 松廣寺이다. 여기서 雙溪寺의 眞岩老師를 소개받고 쌍계사로 갔으나 鷄龍山東鶴寺로 옮긴 뒤였으므로 결국 동학사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14세였다.<sup>5)</sup>

진암을 만나고 그를 따라 다시 봉서사에 온 도암은 적극적으로 산중생활에 임하였다. 그가 머물던 1884년 7월 절의 살림이 어려워 젊은 스님들이 시주를 권하러 나서게 되자 어린 나이에 그들을 따라 나서면서 얻어먹는 사람이 승속이 따로 없음을 피력하는 마음에서 출가에 대한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시주가 끝난 뒤 안타까워하던 노스님을 위로하고자 舜임금이 어린 시절 독장사를 하던 비유를 들던 마음에서 구도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다.

이런 생활을 시작으로 실제로 祝髮하게 된 시기는 그해 가을 鏡虛를 만난 뒤이다. 1884년 10월 초 天藏寺에서 봉서사로 온 경허는 진암에게 도암이 비범한 재주를 가진 소년임을 소개받고 그를 西山의 天藏寺로 보냈다. 당시 천장사에는 자신의 친형인 泰虛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천장사로 옮겨서 생활하던 도암은 그해 12월 8일에 테허를 은사로 경허를 계사로 沙彌戒를 받고 득도하니 법명이 月面이었다.<sup>6)</sup>

5) 1968년도에 발간된 『滿空語錄』에는 東鶴寺에 안주하던 때에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13세에 집을 나와 동학사에 안주한 것을 연속적으로 기술하여 13세에 출가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271-272쪽 참조). 그러나 1982년에 발간된 『滿空法語』에는 이때의 나이를 14세로 표기하고 있다.( 300쪽 참조).

뒤의 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앞의 책을 참고하여 재편한 것이므로 앞의 책 내용이 다소 신뢰성이 있으나 13세 때 금산사를 다녀온 것이 겨울이었고, 그다음 집을 나와 여기저기를 찾아다닌 시간을 보면 그가 출가한 것을 14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특히 鳳棲寺에서 쏜주 松廣寺를 찾아가던 길을 자연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숲 속에 핀 꽃과 재재거리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 겨울을 지나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으므로 滿空의 출가는 14세였음을 알 수 있다.

6)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2-274쪽

## 2. 悟道와 補任

만공의 출가는 경허와 태허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수행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많다. 그것은 출가 후 그의 수행이 대부분 천장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허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의 계사였던 경허는 만공의 오도 후 補任期間에서 그를 지도할 뿐 만공의 오도에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지 못했다.<sup>7)</sup>

이처럼 無師獨悟하는 것은 근대를 전후한 불교계의 추세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것은 당시 교계의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은 오랫동안 배불정책이 진행된 탓으로 진정한 불법을 펴기가 어려웠다. 수행자들도 구도의 정신을 가지기보다는 정법보기를 흠같이 하고 혜명의 계승을 아이들 장난처럼 여겼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여 정법안장이 계승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sup>8)</sup>

그런 분위기에서 만공의 깨달음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그가 23세가 되던 1893년 11월 1일 17세나 18세쯤 보이는 소년이 만공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하루 밤을 머물고 가게 되었다. 이때 소년이 만공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萬法歸一하니 一歸何處, 이것만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고 만사에 無不通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공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화두에 대한 疑端이 생겨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심하였다. 이 같은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

7) 위의 책, 277쪽

8) 『鏡虛集』(『韓國佛教全書』 권11 608 下~609 上).

자 공부를 해볼 양으로 어른 시봉하던 것을 접어두고 몰래 길을 떠나 溫陽 鳳谷寺로 와서는 爐殿으로 지내면서 화두를 참구하였다.

그런 가운데 해가 바뀌어 1895년 7월 25일 동쪽 벽을 의지한 채 서쪽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벽이 없어지면서 一圓相이 나타났다. 그 후 마음과 머리에는 오직 이 일원상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쇠송을 할 때 ‘應觀法界性 一切有心造’를 외우다가 법계의 성품을 깨달아 華嚴刹海가 홀연히 열리면서 확철대오 하였다. 이때의 심정을 읊은 것이 다음과 같은 悟道頌이다.<sup>9)</sup>

空山の 理氣는 古수를 초월했고  
白雲과 淸風은 저절로 오고 가네.  
어떤 일로 達摩는 西天에서 왔는가  
丑時에 닭이 울고 寅時에 해가 뜨네.

만법에서 하나로 귀일되는 것은 차별의 세계에서 본래의 평등세계 즉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옛부터 전해지고 있는 화두를 통해 만공은 일체가 모두 唯心の 조작임을 알고 본래부터 있던 본성의 惺惺함을 찾은 것이다.<sup>10)</sup> 그것은 그 후 만공이 강조하였던 ‘나’를 찾는 일이었다.<sup>11)</sup>

만공의 참구가 2년에 걸친 끝없는 구도의 길이었지만 오도 후 그의 노력은 그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보임 기간동안 그의 진리에 대한 참구는 더 성숙되면서 계사인 경허의 인가를 얻었다.

만공은 깨달음을 얻은 후 智異山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長城 지방에서 유생들이 출가자들을 붙잡아 밥 짓는 일을 시킨다는 말을 듣고 뒤돌아서서 公

9)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4-275쪽

10) 鄭性本, 「滿空禪師의 生涯와 禪思想 研究」 『韓國佛敎學』 제22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6), 118쪽

11)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01쪽

州의 麻谷寺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는 普鏡화상의 권유로 조그만 토굴을 소개받고 보임에 들어갔다.<sup>12)</sup> 그리고 그해 7월 15일 경허를 만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말하자 경허는 ‘火中生蓮’이라 하면서 그의 見處를 높이 평가하였다.<sup>13)</sup> 이때 경허와 만공이 나눈 대화에서 보임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경허 : 藤 토시 하나와 美扇 하나가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부채를 토시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만공 : 토시를 부채라고 하여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고 하여도 옳습니다.

경허 : 네가 일찍이 茶毘文을 보았느냐?

만공 : 보았습니다.

경허 : ‘有眼石人齊下漏’라 하니 이 뜻이 무엇인고?

만공 : 모르겠습니다.

경허 : ‘有眼石人齊下漏’를 모르고 어찌 토시를 부채라고 하고, 부채를 토시라고 하는 도리를 알겠느냐? ‘萬法歸一 一歸何處’의 화두는 더 진보가 없으니 다시 趙州의 無字話頭를 드는 것이 옳다. 圓頓門을 짓지 말고 徑截門을 다시 지으라.<sup>14)</sup>

보임의 기간 동안 만공의 수행은 꽤 진전이 있었으나 만법의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공을 경허는 인가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石人과 같이 감정과 분별적인 의식을 완전히 초월한 非思量의 경지를 비유한 것이지만 만공은 그 근본을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허는 그러한 만공에게 곧바로 見性悟道를 체득할 수 있는 徑截門인 無字話頭를 지으라고 지시하

12) 『滿空語錄』과 『滿空法語』에는 모두 三年을 토굴에서 보낸 것을 되어 있으나 溫陽 鳳谷寺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1895년 7월 25일이며 普鏡和尚의 토굴에서 鏡虛스님을 만난 것이 1896년 7월 15일이므로 토굴생활은 1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6쪽 ; 『滿空法語』(충남: 수덕사 능인선원, 1982), 304쪽

13) 鄭性本, 앞의 논문, 119쪽

14)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6-277쪽

였다.<sup>15)</sup>

경허와 만남을 계기로 무자화두를 참구한 만공은 그 뒤 2년이 지난 1898년 7월에 瑞山郡 島飛山 浮石寺에 주석하던 경허를 만나 법을 물어 玄玄한 妙理를 수학하였다. 그리고 경허를 따라 慶南 東萊郡 梵魚寺 鷄鳴庵 선원으로 가서 하안거를 마쳤다.<sup>16)</sup>

경허는 범어사 계명암선원에 대해서는 ‘梵魚寺鷄鳴庵修禪社芳啣清規’(1902년 10월 15일), ‘東萊郡金井山梵魚寺鷄鳴庵創設禪社記’(1903년 4월 하순), ‘梵魚寺設禪社契誼序’ 등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당시 범어사의 주지 오성월은 경허를 범어사로 초청하여 선종의 진작에 힘썼다. 그래서 1899년 金剛菴을 필두로 이후 安養菴(1900), 鷄鳴菴(1902), 內院菴(1905), 元曉菴禪院(1906) 내지는 安心菴, 圓應房, 大聖庵 등의 禪會(1909)에 이르기까지 범어사 일원을 거의 선원으로 만들어 놓았다.<sup>17)</sup>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경허는 해인사에서 시작한 정혜결사를 범어사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경허는 그런 결사를 통해 당시 정법이 침체되고 미약하여 사된 道가 치성한 말세에서 정혜의 근본을 통달하지 못하고 잘못 수행하게 되는 불교계의 현황을 타개하여 불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sup>18)</sup> 이런 경허의 활동을 지켜본 만공은 항상 경허를 만나기를 그리워하였으며, 그 뒤 자신이 직접 결사를 행할 때 경허의 결사를 사상적 기반을 삼고 있음도 이 당시 함께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공이 補任期間에서 재차 깨닫게 된 것은 1901년 7월 전이다. 만공이 범어사 계명암에서 여름 한 철 안거를 지내고 나서 돌아온 곳이 通度寺 白雲

15) 鄭性本, 앞의 논문, 119-121쪽

16) 『滿空法語』(충남: 수덕사 능인선원, 1982), 277-278쪽

17) 「梵魚寺禪院緣起錄清規錄」 『梵魚寺誌』 亞細亞文化社 1987, 235-255쪽.

18) 김경집, 「경허의 정혜결사와 그 사상적 의의」 『한국불교학』 제21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6), 366-367쪽



庵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百千三昧와 무량묘의를 통달하였다. 그 뒤 1901년 7월 말경에 天藏寺로 돌아와서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逍遙自在한 생활을 즐기면서 삼년을 보냈다. 그 후 1904년 7월 15일 경허가 咸北 甲山으로 가는 길에 들러 그간의 공부에 대해 인가하고 傳法偈를 주었다. 이때 만공이란 호를 하사하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도록 부촉하였다.<sup>19)</sup>

이때 비로소 만공은 경허에게 인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경허가 준 전법계에서 구름, 달, 시냇물, 산과 같은 차별적인 작용을 초월하여 근원적인 本來心에서 무분별의 지혜로 자기의 세계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어나 문자로 나타낼 수 없는 不立文字의 세계이며 教外別傳의 경지이므로 無文印으로 부촉한 것이다.<sup>20)</sup>

이처럼 전법을 부촉 받은 만공은 1905년 봄에 德崇山에 이르러 조그만 茅庵을 짓고 金仙臺라 이름하였다. 여기서 諸山の 衲子들을 가르치어 龍象大德을 배출하였고 修德寺, 定慧寺, 見性庵 등을 중창하면서 선풍을 진작시켰다. 그 후 金剛山 楡岾寺 마하연에서 삼 년을 지냈으며, 瑞山 看月島에 看月庵을 중창하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한 칸 茅屋을 지어 달과 더불어 지내다가 1946년 10월 20일 입적하였다. 이때 세수 75세이며, 법납 62년이였다.<sup>21)</sup>

19)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8-279쪽

이때의 傳法偈는 다음과 같다.

구름, 달, 시냇물, 산처럼 곳곳이 동일 한데 (雲月溪山處處同)

叟山禪子の 大家風이라.(叟山禪子大家風)

은근히 無文印을 分付하노니 慙慙分付無文印)

일단의 機權이 眼中에 살아있다.(一段機權活眼中)

20) 鄭性本, 앞의 논문, 123쪽

21)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9-280쪽

### III 만공의 사상과 활동

#### 1. 만공의 禪思想

만공의 선사상은 화두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看話禪이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계기와 경허의 인가와 지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만공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25세가 되던 해였다. 그렇지만 그가 의심의 끝을 얻은 것은 23세 때 어느 소년의 만남에서 얻게 된 화두였다. 그때의 화두는 “萬法歸一 一歸何處”이었다. 이 화두는 어떤 스님이 趙州스님에게 질문한 선문답으로 만법은 차별과 분별의 세계이므로 이를 떠나 근본의 세계인 평등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고 있다. 이는 일체가 唯心の 조작임을 알고 평범한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존재의 현상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존재의 근원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선 문헌에 보이고 있다.<sup>22)</sup>

그는 여러 해 동안 이 화두를 붙잡고 노력한 탓에 어느 날 새벽 예불에서 ‘應觀法界性 一切有心造’를 외우다가 법계의 성품을 깨달아 華嚴刹海가 홀연히 열리면서 확철대오 하였다.<sup>23)</sup> 옛부터 전해지고 있는 화두를 통해 일체가 모두 唯心の 조작임을 알고 본래부터 있던 本性の 惺惺함을 찾은 것이다.<sup>24)</sup> 그 후 만공의 보임과 경허의 인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깨달음을 이룬 만공은 여러 곳에 선실을 개설하여 선풍을 진작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신의 저술에 남기고 있다. 그가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한 것은 선을 통해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남다른 배려이다. 그것은 선을 통한 깨달음은 바로 자신을 찾는 일이며 그것이 만공의 선사상에서 뚜렷하

22) 鄭性本, 앞의 논문, 118쪽

23)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4-275쪽

24) 鄭性本, 앞의 논문, 118쪽

고 나타나고 있다.

“나라는 의의가 絶對自由로운데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自在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人間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自由가 없고 무엇 하나 任意로 되지 않는 것은 妄我が 주인 되고 眞我が 종이 되어 살아 나가는 까닭이니라.”<sup>25)</sup>

만공이 생각하고 있는 참다운 ‘나’라는 존재는 無限極數的 수명을 지닌 존재로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金剛不壞身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生死가 나의 옷을 바꾸어 입는 것처럼 자신이 소유한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들은 妄我が 주인 되고 眞我が 종이 되어 있으므로 생사의 옷을 자유자재로 벗고 입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망아는 邪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아의 正心을 찾아야 만 시종도 없고 존망도 없고 형상도 없어 부족함이 없는 ‘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간은 六畜과 같아 본능적으로 食色에만 팔려서 허둥거리게 되고, 제 진면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현실에만 끌려서 헤매게 되므로 四生六趣에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망아가 아닌 진아를 찾기 위해 석가세존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를 대상으로 하여 구경에 이르면 내가 곧 부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26)</sup>

만공은 선수행에 있어 일상의 참구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정신을 수합해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선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몸으로 어느 생활을 하던지 구애 없이 정진하여야 하는 것은 선이야말로 나를 찾는 유일한 正路이기 때

25) 『滿空語錄』 (충남: 수덕사, 1968), 189쪽

26) 위의 책, 189-194쪽

문이다.<sup>27)</sup>

이러한 선을 행함에 있어 만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信心과 憤心 그리고 疑心이다. 다음 두 번째가 道場과 道師 그리고 道伴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래전부터 간화선의 기본조건으로 행해져 온 내용이다.<sup>28)</sup> 따라서 만공의 선사상 역시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공이 신심을 강조한 것은 그것에 철저하여야만 자신의 正氣에 대상을 정당화시켜서 자율적 성취를 이루기 때문이다. 범문을 듣고 신심이 동하지 않은 인간이라면 내세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남음 없는 신심만 있으면 도의 기반이 이미 튼튼해진 것이라 하여 선수행에서 신심의 조건을 크게 강조하였다.<sup>29)</sup>

다음은 분심이다. 분심이 필요한 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慈悲心으로 대해야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極惡極毒心이 아니면 팔만사천의 煩惱魔를 쳐부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의심이다. 의심은 신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고한 믿음을 위한 의심은 선수행에서 필요한 조건임은 여러 선사들의 사상에서 보이고 있다. 만공이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선수행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공에 의하면 하나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정신은 靈魂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심을 지어 고양이가 쥐를 노릴 때에 一念에 들고 물이 흘러갈 때 間斷없이 흘러가듯 의심을 간절히 하여 가면 반드시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sup>30)</sup> 즉 疑團을 가

27) 위의 책, 194-195쪽

28) 鄭性本, 앞의 논문, 139-146쪽

29)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196-197쪽

30) 위의 책, 201쪽

저야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만공은 道場과 道師 그리고 道伴을 들고 있다. 먼저 기본요건으로 道場을 들고 있는 이유는 수도생활을 하는 곳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아 참된 인간을 완성시켜 참선의 도리를 전인류에게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이다.<sup>31)</sup>

다음 道伴이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함께 淨業을 닦아가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가장 존중해야 할 존재이며 서로 경계하고 존경하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sup>32)</sup> 왜냐하면 도반의 감화력은 선생의 가르침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sup>33)</sup>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道師인 善知識에 대한 요건이다. 만공이 선지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먼저 참선 자체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으며, 선지식은 일체의 진리에 요달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인생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에 걸림 없이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처님 법은 언어가 끊어지고 心行處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이므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답으로 상속하는 관계로 선지식이 직접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 줄 선지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선지식을 믿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공부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기까지는 선지식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도 흘려버리거나 실행이 없으며 안 된다고 하여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도 일러 주고 있다.<sup>34)</sup>

이러한 요건 이외에도 만공은 참선하는데 몇 가지 주의를 말하였다. 그것

31) 위의 책, 226-227쪽

32) 위의 책, 232쪽

33) 위의 책, 199-200쪽

34) 위의 책, 195-197쪽

은 공부하는데 妄想보다도 睡魔가 두려운 것이므로 먼저 수마를 정복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만공은 공부하다가 졸린 것은 생사대사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므로 이럴 때에는 자신의 前程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寸陰을 허비하지 말며,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울 때 하루 동안 공부를 점검하는 선의 日用事에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sup>35)</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공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던 것과 그 뒤 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그가 주장하고 있는 선은 간화선이다. 이는 臨濟의 뒤를 이은 大慧가 화두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살아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 화두선이다. 그것은 화두를 통해 불조의 길을 보고 혜명을 이으며, 화두를 통해 중생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놓아버리고 오직 일념으로 집중함으로써 자타가 俱忘되었을 때 홀연히 一起한 한 생각에 의해 打成一片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공에 의하면 불법이란 마음을 일으켜 행하여 얻는 것이지만 그것은 무거운 나무와 돌을 운반하는 것 같이 하거나 문무의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는 특별한 작용도 아니다. 그것은 망상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통달하면 마음 바탕이 깨끗해지면 그 마음이 안락하고 조작이 없고 가볍고 무거움과 모자람과 남음 그리고 오고가는 것과 생사가 없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sup>36)</sup>

## 2. 만공의 禪風運動

### 1) 近代禪의 계승

만공의 선풍운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경허에 의해 중흥된 근대 선풍을 계승한 점이다. 만공은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계승

35) 위의 책, 205~206쪽

36) 『鏡虛集』, 『韓國佛教全書』 권 11, 595中.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경허의 사상은 만공과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정도로 만공의 업적이 크다. 그것은 만공에 의해 경허의 특징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경허를 근대선의 중흥조라고 말한다. 법맥이 쇠잔한 시대에 여러 곳에 선원과 선실을 개설하여 불교계에 새로운 선수행의 풍토를 조성하여 선풍을 진작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은 입적 후에도 선풍운동의 사상적 근원이 되어 근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선풍이 전승되게 한 업적에서 근대선의 중흥조라는 명칭이 어울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허의 사상은 여러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제자가 만공이었다. 경허를 계사로 하여 득도하였으며, 그를 시봉하고 그에게 법을 부촉 받았다. 더 나아가 그의 遺文을 모아 발간하는 데에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 활동을 통해 선을 대중화 시킨 것도 경허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점이다.

만공이 경허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음은 결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경허를 만난 뒤 無字話頭를 참구한 만공은 2년이 지난 1898년 7월에 瑞山郡 島飛山 浮石寺로 가서 경허를 만나 법을 물어 玄玄한 妙理를 수학하였다. 그리고 그를 따라 慶南 東萊郡 梵魚寺 鷄鳴庵 선원으로 가서 夏安居를 마쳤다.<sup>37)</sup>

경허의 결사운동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5년간 영남과 호남지방에서 행해지면서 선풍을 진작하였다.<sup>38)</sup> 이런 경허의 결사정신을 만공은 자신이 결사를 이끌어 가면서 계승하였다. 물론 현재 만공이 이끌었던 결사의 모습은 전해지는 내용이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그의 어록에 芳啣錄序가 전해지고 있어 결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방함이란 대중들이 모여 수행할 때 그 취지에 동의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한 준수를 약

37)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77-278쪽

38) 김경집, 앞의 논문, 365~367쪽

속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함이 있다는 것은 크고 작던 간에 그런 수행의 모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공은 두 가지의 芳啣錄에 대한 서문을 남기고 있다. 첫 번째가 1928년(戊辰年)에 기록한 ‘見性庵芳啣錄序’이고, 다음이 1937년(丁丑年)에 기록한 ‘德崇山定慧寺能仁禪會芳啣序’이다. 그는 여기서 苦海를 여의고 覺岸에 오르는 것과, 菩提를 얻어 三界에서 뛰어나려면 모여 참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음에서 그러한 수행의 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또한 만공의 행적을 살펴보면 修德寺와 定慧寺 그리고 見性庵을 중창하여 많은 사부대중을 거느리고 선풍을 크게 떨쳤다는 기록도 그 같은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sup>40)</sup>

만공이 경허의 사상을 계승하려는 점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42년 6월 발간된 『鏡虛集』이다. 경허가 평소 남겼던 문장을 만공이 모았고 이를 문집으로 편찬하면서 萬海 한용운이 교정과 함께 그 서문을 썼다. 그리고 그 문집을 발간하는데 일제하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선학원의 활동에 의해 전국의 선원이 동참 하였다.

당시 선학원에서 경허집을 발간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경허를 조선 불교계의 禪宗復興과 玄風宣揚에 막대한 공로가 있으며, 현재 조선의 수좌로서 경허 선사의 가르침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나타냄으로써 근대 선풍의 부흥과 진작이 경허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취지서에는 간행 발기인 40명과 사무분담인 5명 도합 4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선학원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다.<sup>41)</sup> 그 가운데 만공은 경허집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것은 그가 경허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수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sup>42)</sup> 이와 같은 관계이다 보니

39)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66-269쪽

40) 위의 책, 279-280쪽

41) 명정 譯, 『경허집』(경남: 통도사극락선원, 1990), 6-7쪽



만공의 나이 66살인 때에도 자신은 경허의 불법을 이어받은 제자임을 밝히고 있음에서 그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sup>43)</sup>

## 2) 禪學院과 禪風振作

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의 통치가 용이하게 되자 이어 1911년 6월 制令 제7호로 ‘寺刹令’을 반포하였다. 이 령은 전문 7개조로 되어 조선의 사찰을 총독부가 행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 사찰령과 동시에 전문 8개조로 된 ‘寺刹令施行規則’이 제정되어 그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찰령시행규칙에서는 전국의 사찰을 30본산으로 규정하고 본산의 주지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며 각 말사를 統御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1,300여 사찰을 지배하게 되었다. 일제는 1911년 9월 조선승려의 法類範圍를 공포하여 法席承繼의 순위를 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고, 1912년에는 사찰령에 따른 사법을 균일하게 제정하게 하여 조선의 사찰을 일본승정의 예에 맞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sup>44)</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어난 선풍운동은 일제의 각종 통제와 함께 내적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며, 당시 불교계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되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 바로 禪學院이다.

선학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한 뒤에 사찰령을 공포, 한국불교를 장악하고 있을 때 불조의 정맥을 계승한다는 취지아래 1921년 11월 선종의 중앙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선학원의 기풍도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선풍운동이었으며, 이름도 일반 명칭 대신 막연하게 그냥 선학원이라는 위장칭호를 썼다. 이러한 선학원은 경허의 오도를 계기로 한국 선풍이 다시

42) 『鏡虛集』(『韓國佛教全書』 권11, 587中).

43) 鄭性本, 앞의 논문, 124쪽

44) 柳炳德, 「日帝時代の 佛教」 『近代韓國佛教史論』(서울: 민족사, 1989), 150-151쪽

일어나기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중흥된 선종사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전국의 선객들을 통솔하였다.<sup>45)</sup>

만공은 선학원의 창설에서부터 그 운영에 많은 참여를 하였다. 그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는 것은 그의 취지와 일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학원의 활동 가운데 禪友公濟會에서 채택하고 있는 취지서를 보면 만공이 일제하에서 어떠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1년 11월 창립된 선학원은 창립 직후인 192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에 걸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참석한 승려들 35명 가운데 만공도 참여하여 修道部理事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제정된 취지서에 의하면 선우공제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선종을 진작시킬 수 있는 청정비구 학자들의 육성과 전통적인 불법의 발흥과 중생구제를 내세우고 있음으로써 일제하에서의 전통불교의 계승과 불교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였다.<sup>46)</sup>

그 후 선우공제회는 본부를 선학원에 두고 중앙조직과 지방 선원을 예하 조직으로 두고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재정의 빈약으로 곤란을 겪었다. 그와 함께 선학원도 1924년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1926년 5월부터는 梵魚寺의 포교당으로 그 기능이 용도 변경되면서 침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선학원이 침체에 빠지게 되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만공은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고 있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선학원의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sup>47)</sup>

그 후 선학원은 1931년 경 金寂菴의 주도로 재건되었다. 재건된 선학원에서는 수좌들과 일반 신도들이 공동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적 기반인 男女禪友會를 조직하는 등 선의 대중화를 위한 사

45) 鄭珖鎬, 『近代韓日佛教關係史研究』 (인천: 인하대출판부, 1994), 185쪽

46) 三寶學會, 『韓國近世佛教百年史』 제2권 「禪房編年」 9-10쪽

47) 『滿空法語』 (충남: 수덕사 능인선원, 1982), 209쪽

업을 전개하였다. 당시 선학원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설법과 강화 등의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만공도 여기에 참여하여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기도 하였다.<sup>48)</sup> 그가 설한 법문의 내용은 현재 만공의 어록에 실려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sup>49)</sup>

이런 기반 하에서 선학원은 전선수좌대회를 개최하고 敎務院 중회에 中央禪院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포교부를 설치하여 부인선우회의 도량인 朝鮮佛教婦人禪院을 창건하고, 각 지방의 선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선학원은 선의 대중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선학원은 재정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학원을 ‘財團法人朝鮮佛教禪理參究院’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1934년 12월 5일에 당국으로부터 法人이 인가되자 이사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사장으로 피선된 만공은 재단의 재정을 위해 전담을 기증하였다.

재단이 된 선학원은 다음해 3월 7일에서 8일에 걸쳐 전국수좌대회를 개최하고 선학원의 세부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집행기관의 성격을 띤 중무원을 두었다. 그리고 조선불교선종 중무원 院規를 비롯한 각가지 규약이 통과시켰다. 그 규약에 의해 宗正과 院長, 副院長 그리고 理事를 선임하였는데 여기에서 만공은 申慧月, 方漢岩과 더불어 宗正으로 선임되었다.<sup>50)</sup> 당시 만공이 종정으로 피선된 것은 그의 수행과 교화가 남달랐음을 말해주는 일이다. 그 이후 선학원의 활동도 만공을 포함한 그들의 의식을 반영하게 되었다.

1935년에 수좌대회를 개최한 선학원은 교무원 중회에 청정비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찰을 할애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호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1939년에는 朝鮮佛教禪宗定期禪會에서는 처음 불문에

48) 金光植 『韓國近代佛教史研究』(서울: 민족사, 1996), 119쪽

49)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58-66쪽

50) 金光植, 앞의 책, 126-128쪽

들어오는 수행자를 위한 선지도, 청정비구를 위한 5개 사찰의 지정, 수좌들의 상호 친목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선풍의 진작에 힘을 기우렸다. 비록 그 결실은 미약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전국 선원과 수좌들의 소식 및 제반 활동상황이 선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선학원이 이 시기에 선종의 중심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위에서 보았듯이 만공이 宗正으로 피선되어서 선학원을 이끌어가는 방향은 선의 중흥이었다. 그만큼 만공에게 있어서 선의 중흥은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불교를 회생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의 저술에서도 참선을 강조한 문구가 자주 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음에서 보이는 내용도 참선에 대한 만공의 생각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로써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찍이 발심하여 善知識을 親見하여 多生罪業을 懺悔하고 옛 성현의 親切言句 一千七百 話頭中에 자기에게 합당한 話頭를 분명히 決擇하여 行·住·坐·臥·語·默·動·靜 中에 모든 妄想이 적정한 가운데 化두가 惺惺하여 들지 아니하되 化두가 스스로 들림이 샘물 흘러가듯 간단이 없이 化두가 打成一片에 이르름에 홀연히 妄想구름이 흩어지고 마음 달이 홀로 들어나 三千大千世界를 비추어 밝음이 하늘과 땅이 潰滅하여도 이 光明이 기리 滅할 아니함에 이것을 이 름하되 不生不滅之道라 한다.”<sup>52)</sup>

이후 선학원에서는 다시 1941년 2월 26일부터 일제의 불교정책으로 인해 변질된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遺教法會를 개최하였다. 이 법회에는 당시의 고승 대부분이 참가하여 선학과 계율의 宗旨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통치 아래로 자꾸만 속화되고 타락해버린 교단이긴 하지만 청정한 승풍을 다시 한번 드날려 보자는 취지였다. 이 법

51) 金光植, 위의 책, 133-134쪽

52) 『滿空語錄』(충남: 수덕사, 1968), 250-251쪽

회는 당대의 수도승 가운데서 만공스님을 비롯하여 34명의 청정비구들이 집결하여 여러 경전과 曹溪宗의 종지를 설하였다.<sup>53)</sup>

만공은 3월 10일에 법문하였다.<sup>54)</sup> 그는 자신이 법문하기에 앞서 朴漢永스님과 東山스님이 梵網經에 대해 설하여서 그 공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신의 법문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데 노력하기를 강조하였다. 그 일은 출가한 승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사람에게도 해당된다고 하여 선의 대중화에 일념을 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sup>55)</sup>

#### IV. 結 語

만공이 살았던 생애는 격변의 시대였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일본불교의 유입에 의한 계행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올바른 수행풍토를 유지하기란 끊임없는 정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때 만공이 보여준 철저한 수행관은 흐트러짐 없는 구도자의 모습이었다. 특히 깨달음을 이룬 후의 노력은 깨달음을 얻기 전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이 같은 노력에 의해 만공은 諸山の 衲子들을 가르치고, 龍象大德을 배출하였으며, 많은 사암을 증창하여 선풍을 진작시킬 수 있었다.

그런 구도정신에서 형성된 만공의 선사상은 철저하게 자신을 찾는 것에 일관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적인 自我란 무너지지 않고 邪心이 혼입된 모습

53) 鄭珖鎬, 앞의 책, 205-206쪽

54) 鄭珖鎬, 위의 책, 205~206쪽과 金光植, 앞의 책, 135쪽에서는 모두 유교법회의 개최 기간을 열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82년 덕숭산 능인선원에서 발간된 『滿空法語』 71쪽을 보면 滿空이 선학원 고승대회에서 법문한 날짜가 3월 10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법회기간이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준다.

55) 『滿空法語』 (충남: 수덕사 능인선원, 1982), 71-77쪽

이 아니라 始終과 存亡마저도 개입할 수 없는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眞我이다.

그러나 그 모습을 찾는 것은 형식에 있지 않은 것이 만공의 특색이다.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진한다면 그것이 나를 찾는 바른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간화선의 기본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선사상이 그 범주 안에 있음을 말해준다.

만공은 철저하게 경허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祝髮에서부터 경허를 戒師로 하여 출발하였음은 물론 오도 후 補任의 기간에 이루어진 인가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만공이 선실을 짓고 禪會를 이끌어간 것은 경허의 정혜결사를 계승한 점이다.

그런 이념을 바탕으로 전개한 만공의 선풍운동은 선학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가 선학원의 修道部理事와 理事長 그리고 宗正으로 피선되고 있는 과정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공이 그러한 요직을 거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활동은 선풍의 진작과 대중화였다.

## 주제어

滿空 Mangong, 鏡虛 Kyungheo, 定慧結社 the Samādhi and Prajñā Community, 看話禪 Ganhwaseon, 禪風運動 the movement of zen trend, 禪學院 Seonhakwon, 中央禪院 the central zen-center, 宗正 master of zen Order

## The study of the life and activity of Ven. Mangong

kim, kyung-jib

In this paper, I present Ven. Mangong's life and activity in modern Korean Buddhism.

Ven. mangong was an excellent zen master in modern times. His life agreed with the period when Korean Buddhism lost the fundamental meaning and the spirit of the times of religion. This period was very difficult but he gained new courage and he took actions.

First, he established the position of the Buddhist Priest and a foundation of the Buddhist Priesthood through the right way of devotion to the pursuit of Buddha's faith.

Second, he reconstructed the new zen trend by improving Korean zen practicing method in depressed Korean Buddhism.

Finally, he made a fresh atmosphere by developing the various Buddhist activities.

He educated many Buddhist Priests and built many temples. His beliefs thoroughly succeed to the thoughts of ven. Kyungheo, who was his master.

Ven. Mangong guided a society of priests that influenced the ideological meaning of the Samādhi and Prajña Community, and

published ven. Kyung-heo's writing.

In this course, he reconstructed the new zen trend and popularization through the Sunhakwon, which was established as a zen Order in Korean Buddhism in November 1921.